

# 미래로 선물



「포도나무」발행

Printed by 「포도나무」 in Hamamatsu-city, Shizuoka, JAPAN  
<http://budounoki92.com> ✉ [budounoki@skyblue.ocn.ne.jp](mailto:budounoki@skyblue.ocn.ne.jp)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 < 첫머리에 >

지금 사람들에게 말 못 할 고민이나 괴로움,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나 병을 안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불안, 연애나 결혼, 부부생활, 육아, 노후 등 곤란한 일은 없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기는 해 봤지만...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과연 이대로 좋은지 답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 당신의 전부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천지를 만들고 당신을 모친의 태내에서 만들어 탄생 하게한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를 당신에게 보내 주려고 하십니다.

당신에게 인생 최대의 선물이 될 것 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사실(진리)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때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현실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 당신 안에 있는 크리스티교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 일련 규칙을 받아들이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가르침(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아 “당신의 안에 살아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

사도행전 4장 19~20절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이사야 43장 21절

## 1. 이 세상의 기원

오랜 옛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섬기는 한 사람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미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사람은 거만해져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은 그 거만한 천사를 지상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위하여 지옥을 준비했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천사는 「사탄(마귀)」라고 불려져 지옥에 떨어지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9절

『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

인간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져 하나님과 똑같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탄생해졌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 받고 있는 것을 시샘해 당신이 이 세상에 탄생하던 순간부터 가정교육, 모든 환경, 사람, 매체를 사용해서 자기의 지배하에 들게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도 지옥으로의 길동무로 하기 위하여... 사탄의 하는 짓은 도둑질, 살인 등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므로 모든 수단을 써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여러 가지 생각(느낌)이나 몸의 상태로 시달리고 갈등 하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또 진실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나 많은 미신, 신흥 종교 등을 꾸며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편의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도 신흥 종교의 교주도 진실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입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사람도 우주와 이 지구,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자나 원자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해도 그렇다면 그 분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역시 근원을 더듬어 가면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3~28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ощ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해서 만든 인간이 사탄에 괴롭힘을 당해 현혹되어 있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를 지상에 보내서 자기 자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탄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실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사탄보다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전원을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2. 인간의 악, 죄의 기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원으로서 흙의 티끌로부터 아담(남자)을 만드셨고 남자를 도울 사람으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알몸으로 에덴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뱀(사탄의 상징)이 찾아와 이브를 꾀었습니다.

「 그것을 먹으면 당신들의 눈이 트이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리고 이브는 영리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의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둘의 눈이 트이고 자신들이 알몸으로 있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 네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누가 알렸느냐? 먹지 말라고 명해 놓았던 나무에서 네가 따서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 이브가 나무에서 따서 줬기 때문에 먹었다. 」라고 대답해 이브는 「 뱀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먹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악은 여기가 기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뱀은 들의 모든 짐승 중 가장 저주받은 생물이 되어 평생 기어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괴로움이 더해지고 남자에게는 평생 괴로워도 일하면서 살아 가는 일(가족 부양)이 결정 되어졌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남아 있지요. 성서의 1페이지 ·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으니 읽어보세요.

인간은 선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서 먹은 것으로 지성을 얻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의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동시에—하나님 눈으로 보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든지 거부하든지

개개의 의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러브레터이고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성서에는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장 6절)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사탄과 함께 인생을 걸어 같이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 선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사람으로 있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본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없는지(구해지는지 아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21절

『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 3.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약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태내에 성령으로 인해서 초 자연으로 깃들여져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연호로 쓰이고 있는 기원전·기원은 영어로 말하면 BC (before Christ), AC (after Christ)라고 말하고 Christ=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키워져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함께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진 사람도 있으며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민심의 질투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조차도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중재하며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해 온 죄도 앞으로 범할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보복이 있었고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비를 계속 오게 해 그 시대의 인간을 물로 멸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8사람만은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당신도 들어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 아들 예수님께서서 말하는 것이라면 모두 받아들인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변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후 3일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20절

『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하시니라. 』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 약속은 당신 것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천국으로 가는 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그 후에는 건강 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약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권합니다.

로마서 10장 9~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소리를 내어 읽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드리오니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아멘」은 “그렇게 됐다 라고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당신도 오늘부터 크리스천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서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소서 4장 4~7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러브레터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이 성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이 성서를 행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과는 반대의 가르침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도망치고 싶은 만큼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 5. 성령을 받다

성령이란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만든 폭발적인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힘의 절대적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일하는 때, 인지(人知)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기쁨, 평안과 성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행할 힘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과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성으로 생각해서 말로써 기도할 때는 사탄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들리지 않게 앞질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사탄이 모르는 언어입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말하므로 언제라도 몇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 아직 모를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성령과 방언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불교나 신도, 신흥종교, 심령술이나  
가지각색의 점, 최면술 등 오컬트를 믿고 행한 사람은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365일 매일 축복받도록  
소망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는 운세가 좋았지만 오늘은  
나쁘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신이라고 믿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마태복음 7장 21~23절)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란  
이름뿐 가르침의 안에서 타협해서 유순하지 않던 형제자매도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소리를 내어 다음과 같이 기도 해 주십시오.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어온 일, 가르쳐진 일이 모두 잘못  
된 것임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죄가 용서 된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계속해서 성령과 방언을 받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고 기도하십시오.)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하사 해 주세요. 저의 전신을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바로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주세요. 받았다고 믿고  
혀를 움직이겠습니다.

(라라라라... 라고 소리를 내어 혀를 움직여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표와 기적을  
수행해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6. 악령과 싸울 수 있다

구원되어 성령을 받은 당신에게는 훌륭한 권위와 실행하는 힘이  
부여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줄개인 수많은 악령이 있습니다.

병의 악령, 질투 · 심판 · 증오의 악령, 의리 · 인정 · 휴머니즘 ·  
도덕을 첫째로 하는 여성예언자 이사벨의 악령, 3대부터 4대에  
걸친 저주 · 재앙의 악령, 점의 악령,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



간음 · 더러운 악령, 자기연민 · 자기사랑 · 자살의 악령 등 구원 되기 전의 인간은 반드시 이 악령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 왜 이렇게 나는 쓸모없을까. 」 「 저 녀석만은 용서 할 수 없다. 」

「 담배를 못 끊겠다. 」 「우리 가족은 대대로 암이 유전이니까 나도 아마 암으로 죽을 것이다. 」 ... 구원되기 전의 당신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 이것이 나라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언제나 평안하고 선을 실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족되어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제일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 영 』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령이나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기 위해 주어진 「 당신의 본질 (진짜 당신)」입니다. 동물에는 영혼과 몸밖에 없지만 인간은 영, 영혼, 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교류를 끊은 때 영은 죽어 (활동을 완전히 정지함)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자기 영혼과 몸만으로 살아가도록 돼 버렸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영위하는 부분이고 지성, 의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영혼에 손을 써 인간의 희로애락을 자유로이 컨트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을 되살아나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이 당신의 영과 밀착하여 일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

사탄으로부터 받은 욕망과 감정을 내쫓는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도표를 참조 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

오늘부터는 사탄, 악령들과 싸워서 스스로 내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배해서 오랫동안 당신의 안에 살고 있던 악령을 꺼려 「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의 영, 내게서 나가라! 」라고 믿으며 말 해 주세요. 그냥 「 신 」 만이라면 사탄이 꾸며낸 신도 그 안에 있으므로 당신의 안에 있는 악령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탄(악령)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 거짓 신 사탄에 승리한 것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 」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

그리고 십자가로 흘린 피는 무상의 사랑의 힘, 속죄의 힘으로 크리스천이 받은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부활 (3일째에 죽은 사람의 안에서 소생한 것)은 모든 악을 이겨내는 완전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

## 7.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 권위가 있으면 당신은 오늘부터 병에 시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낫는다!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또 뭔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이 권위를 받고 있는 당신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순조롭다라고 생각하던 참에 불행이 찾아오거나... 사탄(악령)의 존재와 그 책략을 모르고 사는 것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 8. 사람을 무조건으로 용서할 수 있다

「 당신은 죄인입니다! 」 거리에서 이런 식의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아마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 무례하다! 나는 범죄를 지은 적 이라고는 한 번도 없다. 」 라고...

그렇다면 한 번도 사람의 욕을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을 깔보거나 사람 탓으로 한 적은 없습니까? 오래도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느낌은 어떤 범죄자보다도 하나님 눈으로부터 보면 「 죄 」가 됩니다. 누구라도 말이나 태도에 나타내지 않지만 품고 있는 느낌이고 있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의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죄로서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그것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릴랙스하고 있더라도, 지구의 반대쪽에 가더라도 이 느낌은 떠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죽어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 잊고 싶다. 」 「 사과를 했으니 용서해주시. 」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때에는 사탄이 증오의 악령이나 심판의 악령을 보내서 당신에게 그 느낌을 넣어 완전한 죄 안에 가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르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욕한 사람들에게도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누가복음 23장 34절) 라고 말해서 용서됐습니다. 【무조건 용서】

당신 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절대로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당신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불유쾌한 기분이 들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 주세요. 말로 했을 때 당신의 몸에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당신의 【무조건의 용서】에 보답해 하나님께서 상대를 바꿔  
주십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그 느낌은 당신의 마음과 몸에  
달라붙은 채 언제까지나 남아 당신도 상대도 죄를 저지른 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태가 몸에 나타나 병이 됩니다.  
악순환은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 할 수 있을 때에 처음으로  
오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2장 10~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 때 전쟁도 차별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 9. 오늘부터의 마음가짐

### < 신앙이란 >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권유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체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당신 안에 뿌려 주세요.  
씨앗이 없으며 싹은 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자신이 언제나 항상 당신과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당신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행복한  
(행복하게 하는)계획의 레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당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안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당신  
안에 진실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서 오늘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약속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부터는 더욱 당신의 신앙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힘을 써 주시겠지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고민이나 불안, 고통, 분노 등 해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종교는 하나님께 들릴지 말지 모르는 위안의 기도를 하지만 진실의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치료받았다라고 믿고 과거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장 6절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 < 말을 음미하다 >

인간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 하나의 말로써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예를 들면 지금까지 눈앞에 환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건강 상태가 나쁜 것 같네요. 조금 자는 편이 좋아요.」라고 말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는 점점 건강 상태가 나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안색이 좋아졌네요. 건강 해 보여서 좋네요.」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주십시오.

이 예 한 개로도 당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뺀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재기 불능상태로 빠뜨려 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괴롭다가 죽으면 좋겠다.」「실패해서 창피당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순간 당신은 하나님 눈에서 보면 살인을 해서 상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태를 말로 하지 말고 신앙의 말을 입에 담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신의 입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좌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도 상대에게도 기분 좋은 말, 플러스의 말을 걸도록 합시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상대도 하게 됩니다. 말한 채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10절

『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

말 만큼 간단히 자기나 상대의 육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없습시다. 알보지 말고 당장 입으로 뱉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잠언 18장 21절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

## 10.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12절

『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이와 같은 조심 후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의 날” 을 맞이합니다. 사탄이 지옥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 때 인간은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심판되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성서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실시하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시지만 재판자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10절

『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

이 일을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당신의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는 지금까지 전한 것이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일로서 당신 자신이 체험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분은 성서를 펴 보세요. 거기에 당신이 알고 싶은 진리(하나님의 룰), 이제부터 마음가짐에 대한 모든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서는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계속 읽혀 지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서를 당신 인생의 기반으로 하는 일은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 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180도 다른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으로부터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냅니다.

잠언 19장 21절

『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

당신에게 이 말씀이 이뤄 질 것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발행  
2011.5.16

《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

사도행전 5장 38~39절

《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 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

사도행전 26장 16~18절

우리 교회 「 포도나무 」란 성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따 왔습니다.

『 나 (예수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하나님)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크리스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중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성서)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중략)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

예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 에스겔 제34장의 예언에 따라 모여서 성서 전부의  
말씀을 사랑하며 믿고 실천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 말씀은 「 한일대조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용.

**영 · 영혼 ·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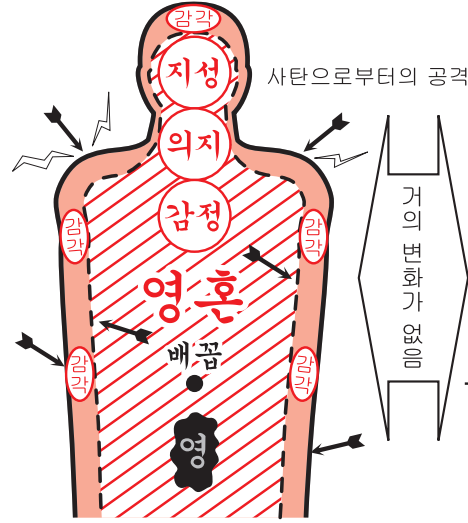
《 당신의 본질 》 (지성·의지·감정) (감각)

진짜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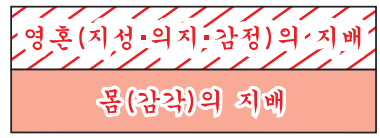
**육체** 《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입은 가죽옷 》

사탄의 지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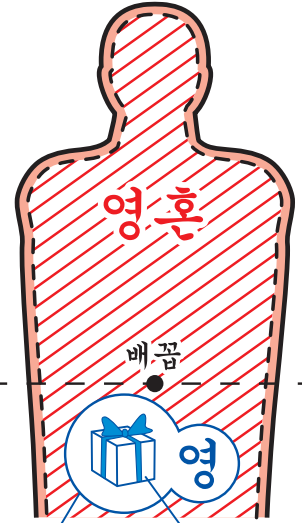
**몸**  
(영과 영혼을 덮고 있는 육체)



(1) 보통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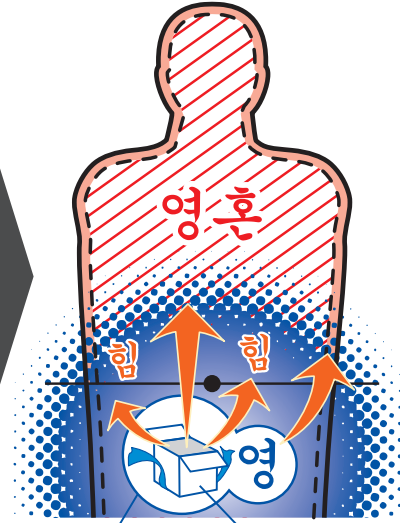
내 안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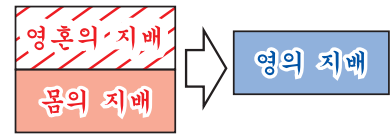
(2)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  
만 한 크리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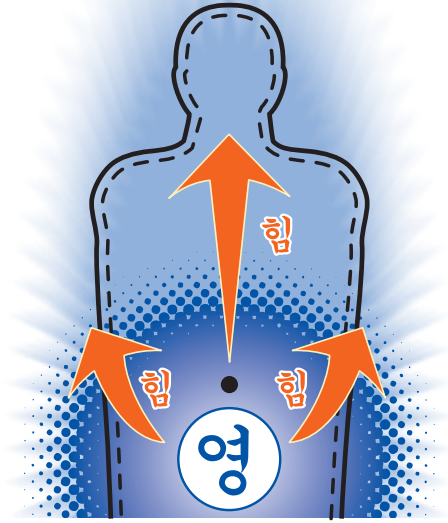
예수님에 의해 내 안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 그리고 보혜사(保惠師) = 성령(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받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선물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힘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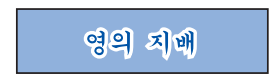
(3) “성령의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의 뚜껑이 열려서 성령의 힘이 뿜어나와 몸 구석구석까지 넘쳐흐름. 사탄으로부터 받은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내쫓을 수 있는 힘이 부여됨.



(4) 성령에 가득차 있는  
크리스천



예수님·성령·내 안의 영이 하나가 되어 그 힘이 몸 전체에서 넘쳐남.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 됨.